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대통령실도 대상

국힘·민주 원내대표 합의 내용 발표 기간 45일...18명으로 특위 구성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점검,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조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점검,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울산경찰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울산소방서, 서울

시, 용산구, 서울교통공사,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으로 정했다. 쟁점이 된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를 국조조사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철회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안을 추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3일 오후 완도군 금일읍 금일저수지(상수원)에서 이상민(맨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우철 완도군수로부터 가뭄 상황을 전해 듣고 있다. 완도군은 극심한 가뭄으로 전체 35.9%의 저수율을 보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기가팩토리 한국에 투자해달라”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면담으로 대체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 내년에는 한국기업 부품의 구매액이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부처가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완도 찾은 이상민 장관 “광역상수도 숙원 해결하겠다”

금일도 척치저수지 등 방문 “큰 돈 들여 근본대책 마련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전남 완도군 금일도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인 광역상수도망 설치를 1650억원의 사업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약속했다.

전남지역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0.5%로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도군은 10월 이후 식수원인 저수지·지하수가 고갈돼 3448세대 주민 6382명이 제한 및 운반급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남부지역 가뭄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이 장관은 완도군 금일도 식수원인 척치저수지를 찾아 바다에 드러난 저수지 저수 상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자에게 급수대책을 보고받았다.

척치저수지는 완도에서도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전남 기준 저수율은

4.3%에 불과한 상태다.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1390명이 18일간 사용하던 고갈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장관은 “와서 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며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마을회관과 물탱크 설치 가옥을 방문해 물 사용실태를 점검한 이 장관은 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해마다 물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큰돈을 한꺼번에 들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역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6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원 마련도 가능할 것 같다”며 “돌아가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숙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경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 장관에게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체 예비비 등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으나, 가뭄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시지역의 항구적 물 부족 해소를 위해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구축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가뭄대책본부’를 가동, 농

업·공업·생활용수 확보, 도민 물 절약 동참 홍보 방안 등 가뭄대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는 광주·전남·제주지역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5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특교세는 섬 지역 급수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에 사용된다.

이 장관은 “가뭄 확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연으로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뭄대책의 한 축은 물 수요관리로, 범시민 20% 물 절약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수습과 무관한 이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